

“슈베르트와 동고동락한 4년 관객과 소통으로 이어져 뿌듯”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4년 여정 마무리하는 김정원

전국 관객 몰입도 높아 놀라 영화·대중음악인 협업 등 친근한 클래식 위해 노력 내달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피아니스트 김정원(43)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21곡)을 연주한 4년 여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김씨는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국 투어의 하나로 광주 공연을 갖는다. 2014년 8월 시작한 전국 연주 대장정에서 이제 3곡만을 남기고 있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그와 19일 전화 인터뷰했다.

“왜 슈베르트냐는 질문에 김씨는 열네 살 적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난 유학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향수를 달래준 친구는 슈베르트의 음악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스며든 제2의 향수는 자연스럽게 그를 슈베르트로 이끌었다.

한 작곡가의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김씨는 전국 연주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행에서 ‘잠시 머무는 것’과 ‘살아보는 것’의 차이를 말했다. 그는 “전곡 연주는 나 자신에게 큰 도전이었다”면서 “4년 여 동안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깊이 알게 됐고 때로는 애증의 감정도 생겼다”고 말했다.

어떤 과정에서 ‘애증’이 생겼고 묻자 김씨는 “슈베르트의 소나타는 음표가 적어서 낭만주의 음악 가운데 굉장히 담백한 편”이라며 “연주자는 간혹 여백을 참지 못해 이를 꾸미고 채우다 오히려 곡을 훼손할 수 있어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소나타 제6번 e단조, 작품번호 566’과 ‘제17번 D장조, 작품번호 850’, ‘제21번 B플랫장조, 작품번호 960’을 연주한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인 21번곡은 그의 연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남달리 아픈 턱에 이 곡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됐다. 반면 17번 소나타는 김씨가 연습하면서 애를 먹은 곡이다. 그는 “수개월 동안 이 작품과 동고동락하면서 악보를 손에 익히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며 “전곡 투어가 끝날 무렵에 이 곡의 매력을 충분히 찾아 성취감이 있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10월2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4년에 걸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갖는다. 김씨는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한 도시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 ‘한동안 살아보는 여행’에 비유했다. <김정원씨 제공>

김씨가 낯익다면 아마 그가 출연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2006)를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연주자들과 ‘MIK 앙상블’을 만들어 10년 넘게 활동했고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김동률, 하림 등 대중음악인들과 협업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클래식 생중계 채널 ‘V살롱’의 예술감독도 맡고 있다.

온 호흡을 가다듬고 무대에 집중해야 하는 연주자가 직접 말을 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김씨는 “별다른 해설 없이 음악만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하는 관객도 있지만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다”며 “좋은 음악으로 청중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형태의

연주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씨는 지난 14일 대구를 시작으로 16일 경기도 고양에서 연주회를 가진 뒤 광주, 부산, 서울, 대전에서 전국 순회를 마친다. 그는 “앞서 2차례의 공연에서 청중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4년 동안 이어진 노력이 소통으로 이어진 것 같아 행복했던 연주였다”며 공연 당시를 떠올렸다.

슈베르트 투어에 이어 자신의 이름을 딴 ‘김정원의 음악신보’를 11월까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한다. 내년에는 브람스의 음악을 다룰 예정이다.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학생 20% 할인).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얀나비’ 김정호를 기억하며

김정호음악회, 모교 수창초교서 29~30일...김범룡 등 참여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를 기리는 ‘제4회 김정호음악회’가 오는 29~30일 열린다. 무대는 김정호의 모교인 광주시 북동수창초등학교에 마련된다. 지난 1985년 서른셋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김정호는 ‘하얀나비’와 ‘이름 모를 소녀’ 등 가장 한국적인 포크 50여 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과 청년·청소년 등 광주시민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첫날은 공성길, 김현우, 양은주 등 지역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열린음악회 1부(오후 4시~5시 30분)로 시작된다. 청년·청

소년들은 청춘버스킹 무대에 올라 김정호의 노래를 재해석한다. 이어 김정호의 음악인생을 그린 뮤지컬 ‘하얀나비’로 무대를 30분 동안 채운다. 작우, 박강수, 임병수, 한승기 등이 출연하는 KBC광주방송 라디오 공개방송을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다음 날 공연은 열린음악회 2부(오후 5시 30분~6시 30분)로 이어진다. 김정호의 음악적 업적과 가치를 광주시민 100명의 대합창으로 전한다. 오후 7시부터 김정호음악회 기념으로 진행되는 광주 MBC 가요베스트에는 현진우, 정다희의 진행과 오승근, 박구윤, 김해연, 정정아, 김범룡 등의 무대로 채워진다.



박강수 김범룡

행사 기간 동안 김정호의 명곡을 통기타로 직접 배워보는 음악학교와 ‘김정호 포토존’도 운영한다. 문의 010-3611-20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류재용 작 ‘월출산과 영산강’

월출산을 탐하다

월출 미술인회, 10월 2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 1993년 첫발을 댄 ‘월출 미술인회’(회장 류재용)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영암 출신 화가들의 모임이다. 영암에서 나고 자란 35명의 작가들은 매년 전시회를 통해 월출산 등 영암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친목도 다져왔다.

전국의 화가들을 초청해 스케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좀 더 의미있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머리를 맞댔다. 많은 고민 끝에 ‘영암 시간을 걷다’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 ‘전통마을 노거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잊혀져가는 고향의 노거수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에 담고, 그 내용들을 작품으로 제작했다.

올해 작가들은 ‘월출산’에 주목했다. 월출미술인회의 ‘영암, 시간을 걷다’ 두 번째 시리즈 ‘월출산을 탐(探)하다’가 20일부터 10월2일까지 유·스퀘어문화

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참여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단순히 월출산의 외형을 표현하기 보다는 월출산에 직접 올라 속살을 들여다보며 월출산의 숨겨진 내면을 다양한 장르로 담아냈다. 마치 학자가 탐구하듯 오랜 시간 자신들과 함께 해온 월출산의 모습을 개성있게 표현해 냈다.

특히 전시도록은 단순히 작품집 개념을 넘어 ‘문화적 사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작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미디어 등 모두 70여점이 작품이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강명구, 김기찬, 김병현, 김소영, 김천일, 류재용, 문명호, 문형선, 송지윤, 전준관, 정선휘, 정현수, 조병연, 조동희, 최규철씨 등이다. 오프닝 행사 20일 오후 6시. 문의 062-360-84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내와의 추억

의사 출신 정진홍 시인 두번째 시집 ‘도시공원’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삶의 과정이 시라는 예술적인 작업을 통하여 새로 태어날 때, 사람의 삶에 대한 의의가 지치지 새롭게 생성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집은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상념을 함께하였던 제 아내와 공유해야 할 결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정진홍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도시공원’(시와사람)을 펴냈다.

지난 2016년 시집 ‘강물은 그 끝이 있을까’ 출간 이후 2년 만에 펴낸 시집에서 시인은 아내와의 추억, 삶에 대한 성찰,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 등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정감어린 어조로 풀어낸다. 특히 2012년 췌장암 발병 후 극심한 충격 속에서도 굳건히 투병해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오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